

성인발달연구를 통해 본 평생발달심리학의 경향과 전망

박 아 청

계명대학교 교육학과

1980년대 후반부터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한 인생주기와 이와 관련된 삶의 스타일의 변화에 동반한 인간발달연구 특히, 자아개념과 관련된 성인발달연구를 중심으로 한 평생발달심리학의 연구경향과 그 전망을 논하였다. 비교적으로 성인의 발달에 대한 연구의 역사는 짧지만 Erikson(1950)의 점성적 이론구조를 근거로 한 여러 성인발달연구는 오늘날 발달심리학에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Levinson(1978), Gould(1978) 및 Vaillant(1977)를 위시한 이들의 연구 결과는 오늘날 발달심리학에 주는 시사점을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성인생활에서도 공통적인 발달이 있다고 하는 점이고, 둘째는 중년기의 위기 또는 성인기의 전환기와 같은 시기에서도 다른 발달단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심리적인 발달이 있다고 하는 점이다. 평생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시작된 성인의 자아발달 또는 아이덴티티 발달에 대한 연구는 최근들어 그 연구의 방향이 점차 실증적인 연구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를 전망해 볼 수 있었다.

핵심어 : 평생발달심리학 · 평생주기 · 성인발달 · 자아기능 · 아이덴티티 발달

평생발달심리학(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예컨대, The Annual Review of Psychology를 비롯하여 평생발달심리학에 관한 연구들이 학회지에서 다루기 시작한 시기가 1980년으로(Baltes, Reese, & Lipitt, 1980), 그 이후 정식으로 성인발달(adult development)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다(Birren, Cunningham, & Yamamoto, 1983; Honzik, 1984; Datan, Rodeheaver, & Hughes, 1987).

평생발달심리학의 연구는 주로 ①지금까지 발달연구에서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성인기를 대상으로 한 성인발달연구와 ②종래 영유아기에서부터 청년기에 이르는 기간의 발달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여러 종류의 문제를 성인기 및 노년기에까지 확대하여 평생에 걸친 평생주기(life span)를 근거로 검토하려 하였다. 말하자면 종래의 발달심리학의 평생화라고 하는 2가지 영역이 있다. 그런데 노년기를 연구대상으로 한 노년심리학(psychology of aging 또는 gerontological psychology)은 G. S. Hall(1922)의 저서 「노년기」

(Senescence)를 비롯하여 이미 오랜 연구역사를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가운데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발달연구를 중심으로 평생발달심리학의 연구를 살펴보고 이 방면의 연구의 동향과 아울러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고찰해보려 한다.

평생발달심리학연구의 배경

인간의 일생동안의 정신발달이나 심리적변화에 대한 검토는 옛날부터 문학, 철학, 종교 등의 주제였다. 예컨대, 서양에 있어서는 Shakespeare의 희곡 「당신마음대로」(As You Like It)를 비롯한 인생을 몇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풍자한 작품을 볼 수 있는데 본래 서양에는 인간의 평생 전반을 발달적으로 보는 사상을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비해 동양에서는 인간의 일생을 두고 마음의 변화를 논한 것으로서 공자에 의한 「논어」, 힌두교의 사주기(四住期)의 사상 등이 있으며, 인간의 정신적 성숙 과정을 평생에 걸쳐서 파악하려는 풍토는 고대로부터 존재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평생주기(life cycle)적 시각에서 본 마음의 발달과정의 해명이 심리학의 연구과제가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발달심리학에 있어서는 몇개의 선구적인 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는 인간의 성장, 발달의 시기는 영유아기에서부터 청년기까지로 보고, 성인기는 이미 발달이 지난 시기로 보았던 것이다. 또 마음의 발달을 성장으로 보지않고 쇠퇴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발달적 시각에서 보았다고 해도 성인기는 규칙적인 변화가 결여된 것으로 보고 성인기에 보이는 변화는 개인차나 개개인이 놓인 상황에 대한 적응으로서 파악하였던 것이었다.

오늘의 평생발달심리학 연구의 발전의 배경에는 장수화와 소가족화에 동반하는 평생주기의 변

화, 가치관이나 삶의 스타일의 다양화라고하는 시대적, 사회적 변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집행유예적인 인간은 청년기뿐만 아니라 성인초기로부터 중년기에 까지 확대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박아청 역, 1983), 자기다운 삶의 모습이나 아이덴티티의 모색은 성인기의 사람들에서도 공통 과제 의식(박아청, 1984)이 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종래의 성인관에 대한 인식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성인기에 보여지는 심리적 변화도 발달적 견해에서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발달이론의 전개와 통합

본래 ‘발달’이란 말은 어느 기간에 걸쳐서 유기체의 크기나 구조가 물리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는 것이라는 생물학적 용어였다. 그것이 행동과학에 적용되어 시간적으로 연속한 프로세스, 즉 적응기능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되었다. 따라서 H. W. Maier(1965)에 의하면 발달이란 개인의 영속적으로 발달하는 퍼스낼리티를 형성해가는 조직상의 변화와 학습에 의한 변화와의 통합을 말하고 있다. 발달적 변화는 어떠한 프로세스로서 파악해야 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오늘날까지 많은 이론을 만들어 내었다. 그들 이론상의 차이점은 발달의 보편성, 가변성, 및 연속성, 비연속성을 보는 입장의 차이에 환원할 수가 있다.

지금까지 발달에 관한 이론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J. B. Watson(1924)에서 시작한 행동주의적인 학습이론의 흐름을 다룬 환경주의적, 기계론적 입장이고, 둘째는 개체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로 보는 유기체론적 입장이다. 여기에는 S. Freud(1905)의 심리-성적 발달이론, E. H. Erikson(1950)의 심리-사회적 발달론, J.

Piaget(1952)의 인지발달론, L. Kohlberg(1963)의 도덕성발달론 등, 발달단계설이라고도 불리우는 많은 이론이 포함되어 있다. 세계로는 기계론적 입장과 유기체론적 입장을 연결시키는 비교적 새로운 생각으로서 나타난 맥락론적 입장을 들 수 있다.

근래 인간발달에 관한 모델로서 사회, 문화, 가족 등의 역할을 강조하고, 인간에 있어서 역사적인 장의 중요성, 생활의 다양한 일들이 개인에게 주는 영향(impact)의 중대성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맥락론적 입장은 이와 같은 발달에 기여하는 환경적 맥락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입장을 대표하는 것이 K. F. Riegel(1973, 1976)의 '변증법적 발달모델'이다. 그는 발달을 여러 단계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 종래의 발달단계설의 입장은 정확하지 않다고 보아 인간의 평생발달은 갈등이나 위기와 그 끊임없는 해결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갈등 그 해결이 모든 발달의 영역에 일관해서 변증법적인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유지된다고 하는 Riegel의 주장은 성인기의 발달을 역동적으로 본 것으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맥락은 생물학적, 사회, 문화적, 물리적 또는 환경적, 역사적인 구성요소가 서로 관계하는 다원적 수준에서 파악하려하기 때문에 Riegel의 이론은 특히 성인기의 발달을 고찰하는데 유익한 시점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초기 성인발달연구

성인기 발달에 관한 연구의 계보는 정신분석학과 서구의 발달심리학자들에 의한 평생발달심리학의 2가지 흐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 정신분석학파에 의한 성인발달연구

정신분석 창시자인 S. Freud(1905)는 심리-성

적 발달단계설을 제창하고 유아기의 심리-성적 발달이 나중에 성인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의 이론은 역동적인 성격발달론에서의 주요한 기초이론이 되고, 많은 후계자들에 의해 발전, 계승되었다. 그러나 Freud의 심리-성적 발달이론은 청년기에 완결되는 것으로 성인기 이후의 심리적 갈등은 유아기 이래 억압되어 온 무의식적인 갈등의 재현이라고 생각하여 성인기를 발달의 시기라고는 보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비해 C. G. Jung은 인생후반기의 발달에 주목한 최초의 인물로서 오늘날 성인발달연구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다. Jung(1933)에 의하면 발달의 근본적인 변화는 '인생의 정오'인 중년기에서 일어나고 그것은 외적 세계에로의 적응으로부터 자기의 내적 존재에로의 적응에 대한 전환인 것이다. 이 중년기에서 시작하고 평생주기의 후반기에 걸쳐서 진전하는 프로세스를 Jung은 '개성화의 과정'(individuation process), 또는 '자기실현(self-realization)의 과정'이라고 부르고 인생의 궁극적 목적으로 보았다.

한편, E. H. Erikson(1950)은 정통 프로이트파의 흐름을 계승하여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인생평생전체를 관통한 성격발달과정을 8가지 단계에서 표현하고, 마음의 발달은 청년기까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통해서 달성되어 가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 Erikson 자신은 실증적인 연구는 수행한 바가 없지만 정체감(identity)은 청년기에 확립되어버려 그 후는 고정적으로 유지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통해서 성숙, 심화되어 가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2. 발달심리학에서의 성인발달연구

성인기의 발달에 관한 제2의 계보는 발달심리학자들에 의한 것이다. R. M. Lerner(1986)에 의하면 E. C. Stanford(1902)에 의해 발표된 「정신의

성장과 쇠퇴』(Mental Growth and Decay)이라는 논문이 평생전반에 걸친 발달의 특징을 검토한 최초의 연구이다. 그러나 그 이후 1920년대까지는 성인기를 대상으로 한 발달적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던 것이다. 1920년대부터 마침내 고전으로 불리우는 G. S. Hall(1922)의 『노년기』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신적 성장과 쇠퇴에 관한 발달적 연구가 나타나게 되었다.

1930년대에는 C. B. Ühler(1933) 또는 E. F. Brünswik(1936, 1937)의 전기연구, S. L. Pressey, J. E. Janney 및 R. G. Kuhlén에 의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것들은 각기 단발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인용된 문헌을 찾아보는 한, 연구자 상호 의견교환이나 토론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이들 선구적인 연구들 가운데 Bühler(1933)의 업적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50년대에 들어 보다 총합적인 성인기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R. J. Havighurst(1953)가 제창한 발달과제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 널리 영향을 미치고 있다. Havighurst의 발달과제론은 일정한 전망을 근거로 인생을 보고자 하는 것을 쉽게한 점에서 매우 우수하며, 사회적 측면을 중시한 이러한 과제는 후술된 D. J. Levinson(1978)의 이론에도 시사를 주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 발달과제가 인간의 발달에서 어느 정도로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남아 있다.

또 B. L. Neugarten과 그의 공동연구자들(1964)은 캔사스시에 거주하는 40세에서 70세의 시민을 대상으로 면접과 투사법을 활용한 조사연구를 통해 성격변화에 대해서 분석한 바가 있다. 이 연구 속에서 그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관심이 외적 세계로부터 내적 세계로 향한다는 것, 자아의 통제기능이 능동형에서 수동형으로 변화한다는 것 등 여러가지 측면으로부터 성격의 변화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Neugarten은

그 일련의 연구(1964, 1968, 1979) 가운데서 연령의 사회적 의미를 연령단계(age grading), 연령-지위(age-status), 연령규범(age norms), 및 사회적 시계(social clock)라고 하는 4가지 요소로 분석하고, 이 사회적인 시간구분(social timing)이 다양한 모양으로 성인기에서의 개인 발달을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50, 1960년대에 걸쳐서 수행된 이 연구들은 1970년대 이후의 성인발달연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그때까지의 연구가 성인기를 포함한 인생의 각 시기에서 단순한 자료의 수집이었던 것이 1950~1960년대를 경계선으로 발달프로세스나 구조의 변화에 대한 탐구로 관심이 옮겨갔다고 하는 것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즉, 1970년대 이후의 연구에서는 질적 분석이 중시되어 질문지 조사뿐만 아니라 집중적인 면접조사나 투사법 조사를 활용한 실증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여 이론화가 진전되었던 것이다.

1970년대 이후의 성인발달연구

앞에서 개관한 성인발달에 관한 2가지 계보는 1970년대 이후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오늘날 성인발달연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E. H. Erikson(1950)의 정신분석적 개체발달분화의 도식(Epigenetic Scheme)은 성인기 발달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것이었다. 1970년대 이후, J. Block와 N. Haan(1971), N. Haan과 D. Day(1974), R. L. Gould(1972, 1978), D. J. Levinson(1974, 1978), M. F. Lowenthal, M. Thurnher 및 D. Chiriboga(1975), G. Sheehy(1974), G. E. Vaillant(1971, 1977) 등에 의해 각각 실증적 연구에 근거한 독자적인 성인발달이론이 발표되고 인간평생 전체를 발달적 입장에서 보려는 시각이 확립되어 갔다.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집중적인 면접조사나 투사법을 활용한 검사

를 사용하여 데이터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하여 개개 성인의 외적 상황의 차이를 초월한 발달의 규칙성이나 성인기의 심리역동적인 발달프로세스를 확인하려고 하였다.

이들 연구에 의해 성인기에서도 퍼서넬리티나 개개인의 의식 또는 목표 등이 다양한 차원에서 일반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변화의 프로세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졌다. 이들 연구의 성과는 성인기의 각 발달기에는 생활구조의 발전(Levinson, 1978), 성격의 '변용'(transformation, Gould, 1978), 자아기능의 성숙(Vaillant, 1977) 등에서 말하고 있는 보다 전인격적인 변화의 프로세스를 확인한 점에 있음을 평가할 수 있다. S. Freud(1905)가 인생후반기의 성격적 발달이나 변화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한 것에 비해 최근의 성인발달연구는 인생후반기에서도 적극적인 창조나 성격의 성숙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들 연구 가운데 대표적인 것 몇가지 연구 가운데서 선정하여 그 주요한 입장을 간단히 소개하려고 한다.

1. 생활구조의 발전 : D. J. Levinson

D. J. Levinson(1974, 1978)은 4가지의 직업군에 속하는 40명의 중년남성들의 개인사를 분석한 결과, 성인기의 발달단계설을 제창하였다. 그는 이 발달적 변화의 기본을 개인의 생활구조(life structure, 어느 시기에 있어서 그 사람 생활의 기본적 유형 또는 설계)의 변화라고 보았다.

Levinson은 이 생활구조의 개념을 사용하여 개인과 외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① 각 인간의 생활구조는 성인기에 비교적 순소가 바른 단계를 거쳐서 발달해간다는 것, ② 성인기의 생활구조의 발달은 안정기(생활구조가 쌓이는 시기)와 과도기(생활구조가 변하는 시기)가 서로 나타나고 발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기본적 개념을 근거

로 변밀한 면접조사를 해 본 결과, Levinson은 성인기에는 40~45세의 인생중간의 이행기(Mid-life transition)와 60~65세의 성인기 후기이행기(Late adult transition)라고 하는 2가지의 큰 전환기가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또 미국의 여류 저널리스트 G. Sheehy (1974)도 Levinson과 동시기에 성인남여를 대상으로 독자적인 면접조사를 행하고 성인기의 발달단계에 대해서 매우 흡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2. 성격의 변용 : R. L. Gould

R. L. Gould도 정신과 의사로서의 임상경험으로부터 성인기에도 심리적인 전환기가 존재함을 주목한 사람이다. Gould(1978)는 성인기의 발달을 아동시대에 유래하는 잘못된 신념을 하나 하나 버리고 현실적으로 성숙한 성인의식(adult consciousness)을 획득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독특한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에 의하면 본래의 의미에서 성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중년기 이후의 일이고 일련의 '변용'(transformation)을 거친 후의 일인 것이다.

3. 자아기능의 성숙 : G. E. Vaillant

G. E. Vaillant(1977)는 1937년부터 시작한 '성인기발달에 관한 장기연구'를 연장하여 95명의 남성을 대상으로한 30년 이상 걸친 종단적 연구를 근거로 자아기능의 발달적 변화를 분석한 바 있다. 그의 일련의 연구는 자아의 방어기제의 개념을 근거로 자아기능을 미숙에서 성숙에 이르는 계층 속에 위치를 설정하고 발달적인 관점에서 정신적 건강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20세부터 35세 사이에 자아의 방어기제는 미숙한 것의 비율이 적어지고 성숙한 것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Vaillant는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유아기부터 중년기에 이르기까지의 생육사를 근거로 미국사회에서의 성인기의 평생주기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 그는 40대에 주목하고 이 시기를 우울감이 증대하고 다시 아이덴티티의 위기가 찾아오는 '제2의 청년기'라고 말하고 있다.

4. 최근 성인발달연구의 공통점과 상이점

이상으로 개관해 본 연구는 연구자에 의해 이론적 배경이나 발달의 시점이 다르지만 얻은 결과를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① 성인기에서의 심리-사회적 변화의 규칙성에 주목하여 성인기에서도 외적 상황의 상이를 초월하여 일반적인 사람들과 공통된 발달과정을 밟는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② 성인기의 발달프로세스 중에는 전환기(Gould, 1978), 이행기(Levinson, 1978), 급변기(Vaillant, 1977; Jaques, 1965)로 불러우는 시기가 존재한다. 그것은 거의 30대 후반으로부터 40대 중년기와 60세 전후의 노년기에로의 이행기라는 것을 시사하였다. 지금까지의 성인관에서는 성인기는 정체(停滯)의 시기라고 보았지만 1970년대 이후의 성인발달연구에서는 이 시기를 새로운 발달이나 갱신의 시기로 보게 되었다.

최근의 성인발달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공통적인 지견이 보이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앞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점으로서 다음과 같은 견해의 상이

점도 존재하고 있다. 그 중핵적인 문제는 성인기에 보이는 여러 변화를 어느 차원에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D. J. Levinson(1978)은 성인기의 각 발달단계는 연령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Age-linked developmental period)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비해 B. L. Neugarten(1979)는 일반적으로 공통된 발달의 방향성보다도 개인특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양자의 견해는 극히 대조적이고 지금까지 소개한 각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발달감은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령(Levinson) 및 개인특성(Neugarten)을 양극으로 하는 연속체(continuum)의 위에 위치를 설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견해가 다름을 야기시킨 하나의 원인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성인기의 전인격적인 발달프로세스를 명확화하기 위해서는 연구범으로서 면밀한 면접조사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 필연적으로 조사대상자는 소수일 가능성이 높으며 많은 연구는 비교적 소수의 대상자로부터 얻은 자료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여러 다양한 계층에 속하는 많은 대상자에 의해 각 연구에서 도출된 발달론의 보편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는 개척적자적 연구의 숙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각 연구의 발달프로세스를 보는 관점이나 분석법은 연구자의 이론적 배경을 깊게 반영시킨 것으로 되기 쉽다. 따라서 이들의 견해의 상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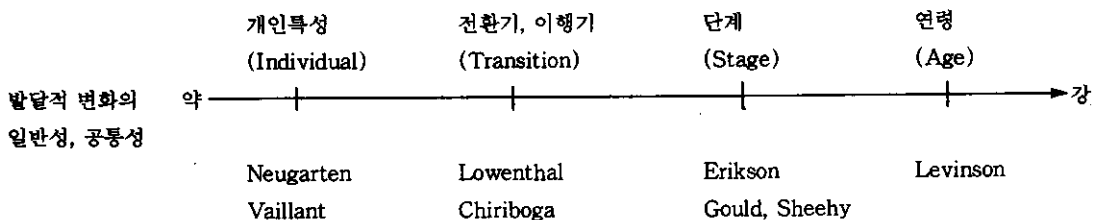


그림 1. 성인기의 발달을 설명하는 주요개념

은 연구자 자신의 발달관의 상이점 그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이론적 배경으로부터 연구방법, 데이터의 분석법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차원에서 연구성과의 교환과 검토를 심화시켜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이덴티티론에 입각한 성인발달연구

1980년대 이후 오늘의 성인의 발달연구의 일영역을 형성해가고 있는 것으로 성인기를 대상으로 한 아이덴티티 연구를 들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E. H. Erikson(1950)은 발달적 견해로부터 인생전반을 이해하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특히, 최근의 성인발달연구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Erikson 자신의 주요한 관심과 Erikson 이후의 아이덴티티 연구의 주류는 청년기에 있으며 성인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지금까지 매우 희소하였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 성인기의 아이덴티티를 발달적 관점으로부터 고찰한 연구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1. 아이덴티티의 경험의 귀납적분화와 연역적 분화 :

생활구조의 발전 : Whitbourne, Weinstock

S. K. Whitbourne와 C. S. Weinstock(1979)은 아이덴티티와 경험과의 관계를 귀납적 분화와 연역적 분화라는 시점에서 독자적인 성인발달론을 전개한다. 그녀들은 새로운 경험이 개인의 내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기의 아이덴티티와의 사이에 모순 또는 위기를 일으키는가를 주목하고 그 위기의 지각의 방식이 아이덴티티의 변용을 가져다주는가를 언급하고 있다. 그 변용의 프로세스에는 그림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귀납적 분화와

연역적 분화, 2가지 종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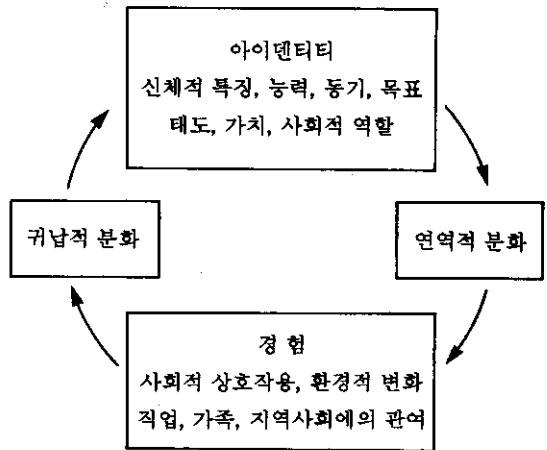


그림 2. 성인기의 아이덴티티 변용의 모델

개개인의 아이덴티티는 이와 같은 위기 또는 모순점에 부딪혔을 경우, 여러 가지 대응의 방식을 취한다. Whitbourne 등은 이러한 생각을 발전시켜 J. E. Marcia(1964)의 아이덴티티 지위의 발달 프로세스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인기의 아이덴티티 발달을 이해하는데 유익한 시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2. 아이덴티티론과 그 발전 :

Marcia, Waterman 및 Whitbourne

Erikson의 아이덴티티이론을 발전시켜 청년기의 아이덴티티 형성의 연구에 뛰어난 관점과 연구법을 제공한 것으로서 J. E. Marcia(1964)의 아이덴티티 지위론이 있다. S. K. Whitbourne(1979), 및 A. S. Waterman(1982)는 Marcia의 지위론을 응용하여 청년기에서 성인기으로의 이행기에서의 아이덴티티 지위발달경로에 대한 모델을 발표하였다(이 모델에 대해서는 이미 줄져 『이덴티티의 세계』(1990)에서 자세하게 소개한 바가 있다). 그들은 청년기에서 성인기으로의 이행기를 염두에 두고 각 모델을 상정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성인기

의 아이덴티티 발달 프로세스를 검토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고 본다.

3. 성인기의 아이덴티티 발달에 관한 실증적 연구

30대~50대의 중년기 아이덴티티의 발달과 그것과 관련된 요인에 대해서 검토한 본격적인 성인기의 아이덴티티 연구는 1980년대부터 조금씩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S. L. Malin(1982), D. J. Sammon(1982) 등은 그들의 학위논문에서 이 방면의 연구에 매우 주요한 시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Levinson(1978)이 제창한 '생활구조'의 양식과 성인기의 아이덴티티와의 관련성을 검토한 것이다. Malin은 45~59세의 남녀 60명을 대상으로 중년기 아이덴티티 지위와 생활구조와의 관련성을 검토한 결과, 예상한대로 아이덴티티 성취형이 가장 안정된 생활구조 속에서 자기확대가 진전되고 있고 자기평가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Sammon은 30대로의 이행기(1978, Age 30 transition)에 있는 가톨릭 사제를 대상으로 아이덴티티 성취도와 생활의 변화에 대한 태도, 인생의 목적감, 권위주의, 통제 의 소재(locus of control), 등 여러 가지 퍼서넬리티 요인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아이덴티티 성취도가 높은 사람은 높은 심리·사회적 성숙성이나 인생목적감이 구비되어 있고, 또 불안이나 권위주의적인 경향이 낮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Sammon은 이러한 결과로부터 성숙한 아이덴티티 구조를 가진 사람은 안정된 준거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사회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변화에 대한 유연성이나 개방성을 구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나 가치, 직업선택, 성적적격감에 대한 의문은 생활의 변화에 대한 부적응이나 낮은 아이덴티티와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Levinson이 제창한 '생활구조'의 발전이라고 하

는 성인기의 심리적 발달프로세스를 종합적으로 다루려는 개념으로 아이덴티티의 모습을 검토한 이 연구들은 중년기 연구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중년기 아이덴티티 위기에 관한 연구(Lowenthal & Chiriboga, 1972; Rosenberg & Farrell, 1976; Ellett, 1982; Shainess, 1977)나 성인 여성의 아이덴티티 발달경로에 관한 연구(O'Connell, 1976; Hopkins, 1980) 등은 성인기 아이덴티티 발달과 위기의 모습을 명확화하려는 것으로 중요하다. 아이덴티티의 개념은 성인기의 발달을 전인격적으로 다루려는 시점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인기 전반을 꿰뚫는 아이덴티티 발달에 관한 연구는 영미에서도 아직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연구에 의해 청년기에 획득된 아이덴티티는 중년기 및 정년퇴직기에 다시 위기를 맞이하여 재음미와 재방향설정이 이루어져 다시 아이덴티티가 성취되는 것, 성인기의 아이덴티티의 성숙에 관련된 요인으로서 성인기 이전의 심리-사회적 과제의 달성, 자아기능의 강도, 또 심리적 위기에 대한 주체적 모색이 깊게 관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평생발달심리학에서 본 발달 프로세스에 대한 새로운 관점

이상에서 성인발달연구의 흐름을 전망해 본 바와 같이 평생발달적 관점에 근거하여 인간의 발달을 볼 때 종래의 인간발달에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가 있다. 즉, 평생주기의 변화와 함께 인생전반에 걸쳐서 차지하고 있는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년기, 성인기, 노년기라고 하는 인생의 각 시기의 의미도 변모해간다고 볼 수 있다. 또 '중년기'란 용어도 수명의 연장과 함께 나타난 비교적 새

로운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평생주기의 각 시기에 대한 종래의 발달관과는 상이한 관점 또는 새롭게 나타난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영·유아기, 아동기

영·유아기의 발달적 의의가 평생주기적 관점 가운데 재검토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발달 초기의 경험이 나중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그것은 아동시대의 경험을 성인기에서의 퍼스낼리티의 형성요인으로서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예컨대, S. Freud(1905)는 유아기의 부모와의 관계가 성인기의 퍼스낼리티를 결정한다고 주창하였다. 또 G. W. Allport(1937) 등의 강화학습이론에 의한 퍼스낼리티관도 발달초기의 동기유발이 기능적인 자율성에 의해 나중의 퍼스낼리티를 형성한다고 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관점들은 성인기 이후의 발달을 너무 고정적으로 보았다고 한 점에서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2. 청년기

청년기의 장기화로 인해 종래의 '어린이에서 어른으로의 이행기, 과도기'로서 청년기를 본 점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모러토리움기로서의 청년기에 대한 이해는 정착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그와 같은 청년기 독특한 심성이나 문화가 존재한다고 하는 입장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이 성인기에도 지배하고 있다는 관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3. 성인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성인기는 발달적으로 고

정된 시기라고 보는 관점으로부터 성인기를 발달기로서 역동적으로 이해로 전환되고 있다.

4. 노년기

근래의 노년기의 발달적 연구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아울러 고정자를 '노인', 노년기를 '쇠퇴기'로 보는 입장은 점차 적절치 못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노년인구가 증대된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만으로 생활해가고 있는 고정자가 갈수록 적어지고 있다. S. R. Kaufman(1986)의 '연령이 없는 자아'(ageless self)에서 보듯이 노년기를 맞이해서도 변화하지 않는 자아개념이나 자립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평생발달심리학, 그 가운데서도 성인기의 발달적 연구는 현 단계에서는 역사가 그리 길지 않지만 앞으로 검토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최근의 성인발달연구의 공통점과 상이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문제는 기초적 연구과제로서 앞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다음과 같은 2가지 문제는 앞으로의 성인발달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성인발달에 있어서의 성차, 또는 성인여성의 발달적 특징에 대한 해명이다. 예컨대, 성인기의 아이덴티티의 발달에는 여성 특유의 문제가 많이 존재하고 있음이 지적되어 있다(예컨대, Hopkins, 1980; O'Connell, 1976). 특히, 여성의 평생주기의 변화가 심한 오늘날, 성인여성의 발달 프로세스를 실증적으로 해명해가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는 평생주기의 최종단계인 노년기의 아이

덴티티나 심리적 모습을 평생발달적 관점에서 고찰해가는 것이다. 노년기 연구는 고령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나라 상황에서 보아도 많은 과제를 갖고 있다. 특히, 노년기의 심리, 사회적 과제의 달성, 정신적 자립이나 정신적 충족감의 획득은 노년기에 이르러서 곧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노년기 연구는 성인기 전반을 꿰뚫는 넓은 시야에 서서 진행해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성인발달연구는 이러한 과제에 대해서도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박아청 역(1983). 현대발달심리학(B. M. Newman & P. R. Newman(1975). *Developmental Through Life: A Psychological Approach*.). 대구 : 형성출판사.
- 박아청(1984). 변모하는 한국중년여성의 생활스타일의 모색. 성인교육, 제2권, 계명대 사회교육연구소, 40-60.
- 박아청(1992). 성격심리학 : 성격과 인간이해. 서울 : 교육과학사.
- Baltes, P. B., Reese, H. W. & Lipsitt, L. P. (1980). 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1, 65-110.
- Birren, J. E., Cunningham, W. R. & Yamanoto, K.(1983). Psychology of adult development and Ag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4, 543-575.
- Datan, N., Rodeheaver, D. & Hughes, F. (1987). Adult development and ag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8, 153-180.
- Ellett, S. E.(1982). An investigation on identity and self-esteem in traditional married women during their middle years, and the impacts of the life planning seminar. *Disertation Abstract International*, 42, 7-B, 2969-2970.
- Erikson, E. H.(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 Norton.
- Gould, R. L.(1978). *Transformations : Growth and Change in Adult Life*. New York : Simon & Schuster.
- Haan, N. & Day, D.(1974). A longitudinal study of change and sameness in personality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5, 11-39.
- Honzik, M. P.(1984). Life-span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5, 309-331.
- Hopkins, L. B.(1980). Inner space and outer space identity in contemporary females. *Psychiatry*, 43, 1-12.
- Jaques, E.(1965). Death and the mid-life crisi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43, 502-514.
- Kaufman, S. R.(1986). *The Ageless Self : Sources of meaning in late life*.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Kohlberg, L.(1963). Moral development and identification. In H. Stevenson(Ed.). *Child Psycholog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rner, R. M.(1986). *Concept and Theories of Human Development*. New York : Random House.
- Levinson, D. J.(1974). Periods in the adult development in men : Ages 18 to 45. *Counseling Psychologist*, 6, 21-25.
- Levinson, D. J.(1978). *The Seasons of Man's Life*. New York : Alfred A. Knopf.
- Lowenthal, M. F., & Chiriboga, D.(1972). Transition to the empty nest : Crisis, challenge, or relief? *Archives of General Psychology*

- chiatry, 26, 8-14.
- Maier, H. W.(1965). *Three Theories of Child Development: The Contributions of E. H. Erikson, J. Piaget and R. R. Sears and Their Applications*. New York : Harper & Row.
- Malin, S. Z.(1982). Ego identity status and second adult life structure in middle aged men and women. *Dissertation Abstract Internatinal*, 43, 3-B, 876.
- Neugarten, B. L.(1964). *Personality in Middle and Later Life*. New York : Atherton Press.
- Neugarten, B. L.(1968) *Middle Age and Aging*.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Neugarten, B. L.(1979). Time, age, and the life cycl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6, 887-894.
- O'Connel, A. N.(1976).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yle and identity synthesis and resynthesis in traditional, neo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44, 675-688.
- Riegel, K. F.(1973). Dialectic operations : The final period of cognitive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16, 346-370.
- Riegel, K. F.(1976). The dialectics of huma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31, 689-700
- Rosenberg, S. D. & Farrell, M. P.(1976). Identity and crisis in middle aged men.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7, 163-170.
- Sammon, S. D.(1982).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level of ego identity and age of commitment to central life structure components in age thirty transition Catholic religious porfessional men. *Dissertation Abstract International*, 43, 1-B,263.
- Shainess, N.(1977). Treatment of crisis in the lives of women : Object loss and identity treat.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31, 227-237.
- Sheehy, G.(1974). *Passages : Predictable crises of adult life*. New York : Dutton & Co.
- Vaillant, G. E.(1977). *Adaptation to Life*. Boston : Little, Brown.
- Waterman, A. S.(1982). Identity development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 An extension of theory and a review of research. *Developmental Psychology*, 18, 341-358.
- Whitbourne, S. K. & Weinstock, C. S.(1979). *Adult Development: The Differentiation of Experience*.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A Review and Some Aspects of Studies on 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Park, Ah-Chung

Department of Education

Keimyung University

This article contains a review together with some considerations concerning studies on 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centering around the studies on adult development. Recently, adult life is regarded as a period of development with the changes of life-cycle and life styles. However, the history of the studies of adult development is comparatively short. Mainly, Epigenetic Scheme by Erikson(1950) built a theoretical base for the study on adult development, and empirical studies on adult development have been rapidly increasing since 1970's, for example, Levinson(1978), Gould(1978), and Vaillant(1977). The following points are suggested by the above mentioned studies : 1. There is a common developmental process in adult life. 2. It is also observed that there are some critical periods in psychological development such as middle age crisis and late adult transition. On the other hand, the developmental studies on adult identity is gradually increasing from 1980. The above studies reveal some important view points proving psychological changes in adulthood in its totality.

Key Words : life-span development psychology · life-cycle · adult development
self-function · identity development